

#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의 서사구조와 춤사위 구조 연구

허종복이 정리한 문동북춤을 중심으로

박인수\*

I. 서론	IV. 결론
II.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의 변천과정	참고문헌
III. 문동북춤의 춤사위와 서사구조 분석	Abstract

## I. 서론

예부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탈춤이 연행되어왔으며, 지역별로 오광대(낙동강 서부지방), 야류(경상남도 낙동강 동부지방), 산대놀이(서울, 경기도), 해서탈춤(황해도) 등의 명칭으로 불려왔다. 이러한 탈춤은 각 지역의 민중을 중심으로 연행되고 발전되어왔으며, 민중의식의 각성에 따라 탈춤의 존재 양상, 구조, 주제들도 함께 발전되어왔다.<sup>1)</sup> 즉 탈춤은 민중을 대변해온 민속극으로 발전된 중요한 형태의 예술인 것이다.<sup>2)</sup> 그 중 경남지역의 탈춤에서는 대부분 나병환자를 주제로 한 문동이<sup>3)</sup> 과장이 발전되어왔다.

이 과장은 나병환자의 생활과 모습을 탈춤 혹은 탈극으로 표현하여 그들이 갖는 비애와 장애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절실한 소망을 표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sup>4)</sup> 고성오광대의 문동북춤은 이러한 내용을 대사 없이 춤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성오광대는 1967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당시의 문동북춤은 현재와는 다르게 기본적인 틀에서 즉흥적인 춤으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여러 명인들에 의해 연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춤사위와 장면이 발전되었고, 이는 1992년 허종복(1930-1995)<sup>5)</sup>에 의해 짜임새 있는 서사구조로 정리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시간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 박사과정, puru0412@naver.com

1) 조동일(2006),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파주: 지식산업사), p.97.

2) 조동일(2005), 『한국의 탈춤』(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18-21.

3) 등장인물의 명칭에서부터 각 과장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제가 암시되어 있다. 노장, 소무, 신장수, 양반, 말뚝이, 영감, 할미 등 신분이나 부류를 나타내는 명칭이 대부분으로, 구체적인 개인의 이름은 드물다. 명칭을 통하여 가면극에서 다루는 것이 등장인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나 계층 사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전경옥(2004), 『한국의 전통연희』(서울: 학교재), p.361.

4) 서연호(2002), 『한국 가면극 연구』(서울: 도서출판), p.175.

5) 허종복의 경우 문동북춤을 직접 전수받지 않았지만 조용배가 타계한 뒤 전수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문동북춤을 재정비하였다. 허창열(2015), 고성오광대 문동북춤 춤사위 연구: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 논문, p.16.

되었다.<sup>6)</sup> 나병환자의 실제적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변형시키고 재창조하여 상징화한 것이다.<sup>7)</sup> 이는 한국의 탈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팬터마임으로 알려져 있는 봉산탈춤의 노장춤<sup>8)</sup>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진 이후 문동북춤을 배우고자 하는 전수생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도 현대적인 춤이라는 평을 많이 한다. 최근에는 연희전공자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문동북춤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분야와 결합하여 연극,<sup>10)</sup> 무용,<sup>11)</sup> 음악작곡<sup>12)</sup> 등의 콘텐츠로 제작되는 사례도 생겨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될 가능성도 보인다.

본고에서는 1992년 허종복에 의해 정리된 문동북춤의 움직임의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나병환자의 움직임과 춤을 비교 분석하였고, 극적인 부분을 정리하고자 당시 나병환자의 생활과 춤의 서사구조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동북춤의 변천과정을 조사하여 춤사위의 변화과정과 서사구조의 유래를 정리하였다. 둘째, 위의 연구된 자료들과 의학적적 중심으로 나병환자의 움직임과 춤동작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문동북춤’의 기본적인 움직임과 춤사위를 정리하였다. 춤 동작의 경우 필자를 통해 촬영하였으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변천과정에서 정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동북춤의 서사구조를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을 독자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없었다. 대신 고성오광대를 다룬 단행본에서 부분적으로 문동북춤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문화재청의 기획으로 심상교가 연구한 『고성오광대』<sup>13)</sup>가 그것인데, 1960년대와 그 이후인 1979년대로 나누어 문동북춤의 변화를 기록하였고, 춤의 순서를 글로 정리하였다. 그 외의 단행본<sup>14)</sup>에도 문동북춤의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으나, 춤사위와 서사구조에 관한 자료는 적었다.

문동북춤의 춤사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황규선의 논문<sup>15)</sup>이 있는데, 문동북춤의 춤사위와 동선을 사진과 함께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하지만 나병환자에 대한 연구 없이 ‘춤사위’를 중심으로 한 무보 형태로만 정리되어 있어 캐릭터를 이해하고 춤과 함께 극을 끌어가는 탈춤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그 외에도 문동북춤을 다룬 논문으로는 총5편의 논문이 있었는데, 춤사위 비교 및 변화 연구<sup>16)</sup>와 연희 형태 및 예술적 특성 등을 본인의 주제와 맞게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sup>17)</sup>하였다.

6) 고성오광대 현 전수조교인 황종욱의 인터뷰 내용 중. 일시: 2015. 6. 3.(수) 오후 6시 30분. 장소: 경남 고성 고성오광대 보존회관.

7) 심상교(2000), 『고성오광대』(서울: 화산문화), p.21.

8) 서연호(2010),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서울: 동문선), pp.115-16. 박전열(2001), 『봉산탈춤』(서울: 화산문화사), p.32.

9) 봉산탈춤의 제4과장 1경으로 어린 여자인 소무를 70대의 노인인 노장이 범하여 불도를 파계를 하는 행위를 대사 없이 오로지 춤으로만 표현하는 과장이다.

10) 오재익(1988)이 작·연출한 창작국악극 문동이(2014)는 판소리를 전공하였으며,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을 보고 영감을 받아 창작 국악극으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11) 박경량(1961)에 의해 제작된 창작무용 “똥춤”은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작품이다. 「박경량류 영남교방춤 홈페이지」 참고.

12) 김인규(1984)에 의해 제작되어진 “문동북춤 for Orchestra”는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의 반주음악에서 추출한 소재와 춤의 움직임을 묘사한 소재에 현대적인 어법을 결합하여 더 폭넓고 강렬한 감성을 표현하였다.

13) 심상교(2000), 『고성오광대』(서울: 화산문화).

14) 정상박(1986),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서울: 집문당). 정범태(1985), 『韓國의 名武』(서울: 한국일보사).

정범태(2008), 『한국춤 백년 · 1: 한국춤의 전통을 이어온 20세기의 예인들』(서울: 눈빛출판사).

15) 황규선(2004), 고성오광대 문동북춤 춤사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6) 김운경(1979), 경남가면무의 미적연구: 문동이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창열(2015), 고성오광대 문동북춤 춤사위 연구: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 논문.

본 연구에서는 위의 자료들과 함께 현장에서 문동북춤의 발전된 현황과 공연상황 등의 다양한 사례를 보충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고성오광대를 연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존회 입회기간이 가장 오래된 현보유자인 이운석<sup>18)</sup>과 고성오광대의 연희자이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고성오광대 보존회의 실무를 맡아온 황중욱<sup>19)</sup>사무국장과 진행하였다.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허종복에 의해 문동북춤이 어떠한 계기 또는 형태로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필요에 의해 고성오광대보존회의 홈페이지나 그와 관련된 공연영상도 참고하였다.

## II.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의 변천과정

고성오광대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전승되는 탈놀이로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탈놀이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연희 양식들을 재창조한 것으로 그 유래에는 여러 설들이 있었다. 이 설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영남지역의 탈춤은 초계에서 시작되어 각 지역으로 퍼졌고, 고성에 유입된 시기는 통영을 거쳐 전수되었거나 통영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전수된 것으로 추측된다.<sup>20)</sup> 확실한 고증은 어려우나 현재와 같은 놀이로 짜임새를 갖게 된 것은 1920년 무렵이라고 한다.<sup>21)</sup> 고성오광대의 가면들 가면의 유형적 측면으로 말한다면 예능가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sup>22)</sup> 제의적절차인 마을제당고사, 뒷고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sup>23)</sup> 벽사의식적인 성격보다는 오락적인 성격이 강하며 대사보다는 춤사위가 발전되어있어 춤을 위주로 극을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고성오광대는 총5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있다.<sup>24)</sup> 5개의 과장이 하나의 긴 줄거리가 아닌 각각 독립된 주제를 다루는 옴니버스형식으로 진행된다. 그 과장으로는 제1과장 문동북춤, 제2과장 오광대, 제3과장 비비양반, 제4과장 승무, 제5과장 제밀주(제물집 혹은 작은어미)이다. 그 중 제1과장 문동북춤은 양반의 자손이나 조상들의 누적된 죄업으로 천형인 나병에 걸려 고통 받는 나병환자의 삶을 표현한 춤이다.<sup>25)</sup> 하지만 단순히 나병환자의 고통만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소고를 통해 이를 나병환자 스스로 승화하는 모습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이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김운미, 이미희(2007),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에 나타난 지역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1, pp.45-61; 권정해(2008), 낙동강하류지역의 토착춤 연구: 문동이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송현(2014), 장자(莊子)사상의 덕(德), 추(醜) 개념을 중심으로 본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의 양식적 특성 연구, 『우리 춤과 과학기술』 27, pp.107-142.

18) 이운석(1949)은 현 고성오광대보존회 보유자이며 말뚝이 배역을 맡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여 연희전공생들에게 고성오광대를 가르쳤다.

19) 황중욱(1969)은 현 고성오광대보존회 전수조교이며,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여 연희전공생에게 고성오광대를 가르치고 있다.

20) 이두현(1981), 『韓國의 탈춤』(서울: 一志社), p.143; 서연호(1989), 『野流·五廣大탈놀이』(서울: 열화당), pp.45-46. 심상교(2000), 『고성오광대』(서울: 화산문화), p.15.

21) 전경욱(2014), 『한국전통연희사전』(서울: 민속원), p.109.

22) 가면의 유형은 대체로 풍요제의 가면, 예능 가면, 영혼 가면, 입사 가면, 토렘가면, 기우(祈雨)가면 등으로 분류한다. 가면의 유형은 하나의 기능과 함께 다른 기능을 내재시키기도 한다. 심상교, 앞의 책, p.18.

23) 정상박(2013), 『20세기 경남의 가면극과 공예: 양하 정상박 선생 기증사진집』(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85.

24) 오광대는 다섯 광대가 나오기 때문에 혹은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광대라고 한다. 전경욱(2004), 『한국의전통연희』(서울: 학교재), p.389.

25) 심상교(2000), p.18.

- ① (전반부)나병환자의 '삶'을 춤으로 표현
- ② (중반부)소고를 발견하나 이를 들지 못해 절망
- ③ (후반부)노력 끝에 간신히 소고를 잡아 소고춤을 추어 기쁨으로 승화

1992년 허종복에 의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큰 구조 속에서 당시 연희자의 재량에 의해 즉흥적으로 연행되어왔다. 본장에서는 과거 경상도 지역 나병환자의 모습과 고성오광대 문동복춤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종복이 정리한 문동복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문동복춤의 변천과정

문동복춤의 모티브는 '한센병' 혹은 '나병'이라는 일종의 피부병으로 *Mycobacterium leprae*라는 균에 의해 감염된다. 증상으로는 감각마비를 비롯하여 피가 상하여 짓 물려 고름이 생기는 것, 근육이 상하여 손과 발이 떨어지는 것, 뼈가 상하여 콧마루가 내려앉는 것 등이다.<sup>26)</sup>

현재 나병환자<sup>27)</sup>와 관련된 과장을 포함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탈춤으로는 동래야류,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로 경남지역인 부산 동래, 통영, 고성, 사천에만 분포되어 있다. 또한 경남 시도무형문화재인 진주오광대에도 문동이 마당이 남아있어 경남지역의 탈춤에만 나병환자를 표현한 과장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춤 이외에도 밀양백중놀이의 병신춤과 공옥진의 병신춤에도 문동을 흉내 내는 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문동이춤은 대부분 나병환자의 생활모습을 모방하여 춤으로 제작하였다.

6.25 동란 전까지만 해도 경남지방에서는 문둥이가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거하며 마을로 걸식하러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난꾸러기 소년들은 문둥이 장타령 하는 흉내를 내거나 문둥이 파리 잡아먹는 모습을 따라하며 사람들을 웃기곤 했다.<sup>28)</sup>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산오광대 제2과장 문둥이 과장에서는 5명의 문둥이가 몰려나와 장타령을 하는 장면<sup>29)</sup>이 남아있고, 고성오광대의 제1과장 문동복춤에서는 파리를 잡아먹는 장면이 남아있는데, 당시 그들의 모습이 탈춤의 과장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장면들은 나병환자의 생활모습들을 모방하여 이를 토대로 탈춤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는 평야 지대인 전라도나 충청도와 달리 산간 비탈이 많고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쌀농사보다는 보리농사가 적합했다. 옛날 가난하던 시절, 나병환자에게는 익은 보리만이 유일한 먹을거리였으며, 천형의 병으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높이 자란 보리밭에 숨어 지내어 보리밭에 문둥이가 유독 많았다고 한다.<sup>30)</sup> 고성오광대 문동복춤을 살펴보면 보리를 주워 먹는 장면이 있는데, 당시 나병환자들의 모습을 모방하여 춤의 동작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이정화, 이필영(2009), 문둥병에 대한 민속상의 인식과 대응,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4-19.

27) 문동복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대상인 문둥병환자는 문둥이, 어딩이, 나환자, 나병환자 등 여러 형태로 불린다. 문둥이는 나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본고에서는 '나병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전경옥(2014), 앞의 책, p.436.

28) 정삼박(1986),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서울: 집문당), p.123.

29)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상자료관, 『가산오광대』, 영상자료 참고.

30) 윤석산(2015년 5월 28일), "[마음이 머무는 시] 대구식(大邱式)인사법2-상회구", 『뉴스천지』.

이처럼 현재 각 지역의 문둥이 과장에는 과거 나병환자들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연희자들은 나병환자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여 그들의 모습을 문둥복춤으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성오광대의 문둥복춤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도 춤사위의 변화를 보였다. 초창기의 문둥복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애환의 춤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음탕한 동작을 함께 표현하거나 우습게 흉내 내어 관객을 웃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이 문둥이춤/문둥이·어당이 놀이단위를 두고 문둥이의 골수에 맺힌 원한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놀이판에 가서 관찰해 보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통영오광대를 제외하고는 문둥이역을 하는 사람이든 관객이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이그러진 기괴한 가면, 문둥이 파리 잡아먹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덩굴기도 하면서 추는 문둥이춤, 이런 것을 보고 관객들은 킁킁거리고 웃는 광경을 볼 수 있다.<sup>32)</sup>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통영오광대를 제외한 나머지 문둥복춤은 그 의도가 어떠한 웃음거리과장으로 표현되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고성오광대의 문둥복춤의 춤사위도 통영오광대의 문둥복춤과 마찬가지로 한을 표현하고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과장으로 정립되어온 것이다. 다음은 고성오광대 문둥복춤의 변화된 과정을 선행연구<sup>33)</sup>들과 영상자료,<sup>34)</sup> 인터뷰 내용<sup>35)</sup>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1965년 홍성락(1887~1970)에 의해 연행된 자료와 1969년 김인조(1911~1970)에 의해 연행된 영상자료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소고<sup>36)</sup>를 들고 춤을 추고 있으며,<sup>37)</sup> 영상에서 확인된 당시의 문둥복춤 춤사위는 소고를 가지고 발로차고 좌우새를 주는 등 그 형태는 현재의 춤사위에 비해 매우 단순한 편이다. 1964년의 영상자료에서는 사물악기가 사용되었으며, 현재 확인된 자료 중 유일하게 타령장단으로 연행이 되었다. 1969년도의 자료에서는 굿거리로 연주하였으며, 사물악기에 구음이 함께 연주되었다.

1979년의 문둥복춤에서는 한을 표현하는 전반부와 한의 승화를 표현한 후반부로 나뉘어 연행되어진다. 나병환자의 삶이 춤을 통해 희노애락으로 표현되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한을 푸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 살풀이춤의 내용과 닮아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반주로는 사물악기와 호적을 사용하였다.

1988년 조용배(1929~1991)에 의해 연행된 고성오광대 상설공연 자료를 보면 기존의 춤사위에 비해 동작도 많이 늘어났고,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주로는 사물악기와 호적이 사용되었으며, 굿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이 사용되었다.

31) 정범태(2006), 『한국춤 백년·1: 한국춤의 전통을 이어온 20세기의 예인들』(서울: 문빛출판사), p.32.

32) 정상박(1985), p.122.

33) 심상교(2000), pp.28-32; 황규선(2004), 고성오광대 문둥복춤 춤사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7-28; 허창열(2015), pp.17-35.

34) 고성오광대 상설공연 실황녹화(1988), DVD 영상자료,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 고향을 나누는 춤판(1999), DVD 영상자료, 고성오광대 문화재청 기록화 사업 공연(2000), DVD 영상자료, KUNA-KU 정기 Series 탈춤 공연 천하제일탈(2006), DVD 영상자료.

35) 고성오광대 현 전수조교인 황종욱의 인터뷰 내용 중, 일시: 2015. 6. 3.(수) 오후 7시, 장소: 경남 고성 고성오광대 보존회관.

36) 현재 문둥복춤에 한을 푸는 도구로 사용되는 악기는 '소고' 혹은 '반고' 또는 '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소고'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37) 이윤순, 허재도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부터 북을 들고 문둥복춤을 춘 적은 없다고 한다. 아마도 공연테이프의 편집상의 잘못인거 같다. 심상교(2004), pp.30-32.

허중복에 의해 연행된 문동복춤 공연영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1999년(이태영, 1960), 2000년(허중원, 1937~2012), 2006년(허창열, 1979)의 공연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춤사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형태의 서사구조로 연행되었다.

이후의 연행된 영상자료<sup>38)</sup>들도 음악적인 변화를 준 경우는 있었지만, 춤사위와 춤의 서사구조는 대부분 비슷하게 연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춤으로 전승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허중복이 정리한 문동복춤

문동복춤은 나병환자들의 천형의 슬픔을 표현한 춤에서 부터 시작되어, 비정상적인 신체를 극복하는 내용의 탈춤이다. 춤은 전반적으로 나병환자를 모티브로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매우 유사하면서도 상이하게 본 따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동작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연희자는 이 동작들과 당시 민족의 상징으로 누구나 쉽게 가지고 놀던 소고라는 악기를 더해 이야기로 만들었다. 당시 나병환자라면 잡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소고를 마비되고 떨어져나간 손가락으로 힘겹게 집어, 멋들어진 춤을 추게 되는 과정은 관객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비껴나가게 하는 아이러니한 전도를 이루어내는 구조인 것이다.<sup>39)</sup>

2006~2015년까지 문동복춤 공연을 관람하고 또 직접 연행한 경험에 의하면, 일반 관객들로 하여금 대부분이 좋은 평을 얻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나병환자들의 애환을 공감하여 우는 관객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놀림거리가 된 경우도 있었다. 2012년 의정부에서 풍물패와 문동광대가 함께 등장을 하였는데, 어린아이들이 문동광대를 거지라고 놀리며 옷을 잡아당기거나 때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2015년 부산에서는 노년층의 관객들 중 파리 잡아먹는 부분과 보리를 뺏는 부분을 흥내 내며 “어렸을 적에 문둥이들 보고 흥내 내며 놀았었는데”라며 반가워했다고 한다.<sup>40)</sup>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관객이 아닌 나병환자에게 공연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왔는지 황중옥과의 인터뷰<sup>41)</sup>를 통해 조사해보았다.

내가 들은 이야기지만 ... (1980년대 중반) 이애주 선생님이 문동복춤을 배우러 왔다 아이가 문동복춤을 배워가지고 성심원이라고 함양에서 산청 가는 곳 있어 거기서 춤을 막춘기라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대단히 호평을 했지, 이렇게 “아 정말 잘한다.” 뭐 이렇게 했지 그건 내가 들은 이야기지.

우리 허중원 선생님이 복춤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 갔어.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으로 가셨지. 그때 문동복춤을 했어. 그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데. ... 근데 이런 생각은 있지 춤으로 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감정을 전달했다는 뜻이 있는 거지.

38) 유튜브, 다음 tv팟, 네이버 tv캐스트에 업로드 된 “문동복춤” 영상참고.

39) 이렇게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서사를 ‘자기서사’라고 한다. 연희자가 나병환자 내면의 병약한 자기서사를 발견하고 문동복춤으로 제작한 것은 심리치료의 효과를 주기도 하였을 것이다. 배수을(2012), 통합무용치료의 접근 방법론 연구: 문학, 음악, 명상 요소와의 통합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37, p.8-9.

40) 필자의 경험과, 2015년 7월 24일 5시 <천하제일탈>공동대표이며, 「고성오광대」의 이수자인 허창열과의 인터뷰내용을 토대로 작성, 2015년 6월 11일 2시 <천하제일탈>공동대표이며,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이수자인 이주원(1980)과의 인터뷰내용.

41) 고성오광대 현 전수조교인 황중옥의 인터뷰 내용 중. 일시: 2015. 6. 3.(수) 오후 7시. 장소: 경남 고성 고성오광대 보존회관.

… 허종원 선생님의 춤을 봐서 소고를 공연 중에 (나병환자가) 소고를 가지고 가쁜가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가 문동인데 진짜 우리보다 잘 추고 논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지. (2001년 5월 18일 산청군 성심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중)

이처럼 당시의 문동복춤은 나병환자에게 연희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어 호평으로 다가왔었다. 하지만 모든 춤사위가 호평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고성의 나환자촌인 송의원에서 고성오광대 보존회 측에 문동복춤의 장면 중 파리를 잡아먹는 장면이 있어 이를 문제 삼아 연락이 왔다고 한다.

(당시 송의원 이장)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파리를 잡아먹지 않는데 그건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 당신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그걸 봤을 경우 그 자식들은 뭐라고 하겠는가, 손자들이 있는데, 병 걸린 것도 마음이 지지리 아픈데 … 아무리 예술이 좋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예술인가, …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라. 꼭 그 씬이 꼭 필요한게 아니면 안했으면 좋겠다.” (황종욱) “화도 안내고 딱딱 설명하시네, 정말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하셔서 감동받았지.”

이후 고성오광대 보존회 측에서는 송의원으로 방문하여 공연을 연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문동복춤의 공연을 그들 앞에서 연행하여 이를 보고 장면의 삭제여부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연 당시 갑작스러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송의원의 출입이 금지 되었고, 그 이후 송의원의 이장이 바뀌어 공연계획은 무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뷰한 황종욱사무국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나병환자가 파리를 잡아먹는 춤사위를 통해 상처를 받는다면 장면을 삭제해도 괜찮다고 하였다.<sup>42)</sup>

### III. 문동복춤의 춤사위와 서사구조 분석

이운석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홍성락과 김인조는 문동복춤을 즉흥의 몸짓으로부터 표현된 춤사위라고 하였다. 그에 비해 조용배<sup>43)</sup>는 문동복춤에 의미를 담아 몸짓으로 표현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용배의 문동복춤은 박갑준(1921~1989)과 장용만(1932~1992)에게 이어졌다.<sup>44)</sup>

황종욱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허종복<sup>45)</sup>은 당시 문동복춤이 아닌 말뚝이의 배역을 맡고 있었지만, 예전부터 문동복춤의 춤사위가 정형화 되어있지 않아 정립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전수를 받으러오는 전수생들이 정형화된 순서가 없어 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문제를 느껴, 1992년 여름 8주간의 시간에 걸쳐 전수를 목적으로 직접 정리하였다고 한다.<sup>46)</sup>

42) 고성오광대의 이수자이며 현재 문동복춤을 계승하고 있는 허창열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파리 잡는 사위의 명칭을 곤충을 잡아먹는 사위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허창열(2015), p.40. 2015년 7월 24일 5시 허창열(1979)과의 인터뷰내용을 토대로 작성.

43) 금산 조용배는 <문동복춤>의 명인이었고, 파계승을 연출하는 승무의 명인이었다. 파격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제자들이 이백에 비교했다. 달에 빠져 물에 빠진 시인처럼 춤에 빠져 풍류로 종신한 기인이었다. 진옥섭(2007), 『진옥섭의 藝人名사 노름마치』(서울: 생각의나무), p.150.

44) 고성오광대 현 인간문화재 이운석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시: 2013. 8. 9.(금) 오전 11시. 장소: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허창열(2015), p.79.

45) 고산 허종복은 <말뚝이춤>의 명인이었다. 발일하다 두루미만 보면 쟁기를 팽개치고 날갯짓을 흉내 냈고, 어두운 마당에서 막 나온 녹음기를 들고 끊임없이 연습할 정도로 춤에 일생을 바쳤다. 또한 3만 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춤에 종신한 명무였다. 진옥섭(2007), pp.151-52.

허종복 선생님 살아생전 하시는 말씀이 ... 이 양반 “문둥춤을 좀 손을 손뽀야할کن데” ... 전수를 해야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춤이 정말 좋은 춤인데” 그 선생님은 안 오시지 자기 입장에서 “아 저걸 좀 정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살았지. ... 그러다 춤을 다시 정립을 쪽쪽 하셨지 그 지금 하는게 그 춤이지.<sup>47)</sup>

허종복은 춤사위에 이야기와 의미를 담아 연행해온 조용배의 문둥복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춤사위와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장에서는 고성오광대 연희자들이 나병환자의 모습을 어떠한 형태의 춤사위로 제작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춤사위들이 허종복에 의해 어떠한 형태의 서사구조로 정리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나병환자의 움직임과 문둥복춤의 춤사위 비교

춤은 구체적인 생각이나 정보의 전달보다는 느낌이나 감정의 전달에 뛰어난 매체이다.<sup>48)</sup> 즉 문둥복춤에 표현되는 감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나병환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다음은 문둥복춤 중 나병환자의 일상을 표현하는 춤사위를 선정하여 그 움직임과 구조를 나병학에서 연구된 나병환자의 움직임을 토대로 연구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둥복춤의 춤사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가. 기본 표현법

과거의 문둥이 탈은 나무로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종이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액체 덩어리가 흘러내리고 있는 듯 표현되어 얼굴 전체가 불균형적이고 일그러져 있음을 강조하여 천형을 앓고 있는 고통의 인물임을 부각하고 있다.<sup>49)</sup> 나병환자의 얼굴을 매우 유사하게 모방하였으며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머리위에는 이마가 보이도록 패랭이를 일자로 쓴다.



〈그림 1〉 나병환자의 얼굴<sup>50)</sup>



〈그림 2〉 문둥이탈<sup>51)</sup>

46) 1976년 조용배가 풍류의 길을 나선 이후에는 허종복이 중심이 되어 전수를 하였다. 진옥섭(2007), 앞의 책, p.170.

47) 고성오광대 현 전수조교인 황종욱의 인터뷰 내용 중. 일시: 2015. 6. 3.(수) 오후 7시. 장소: 경남 고성 고성오광대 보존회관.

48) 김말복(2006), 춤을 통해본 한국적 움직임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무용예술학연구』 18, p.3.

49) 심상교(2000), p.28.

50) 대한나학회 편저(2004), 『나병학: 제3군 법정전염병』(의왕: 한국한센복지협회), p.263.

51) 심상교(2000), p.151.



나병에서 흔히 보는 수지굴곡현상 <그림 3>은 중수지골관절(MP joint)에서 손가락을 굴곡하는 능력이 소실되고 또한 지골간관절(IP joint)에서 손가락을 펴지 못하는 변형이다.<sup>53)</sup>

또한 손에서 주로 운동마비성을 발생하여 근력저하가 있어 수의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통증을 느끼지 못해 반복되는 외상으로 <그림 4>와 같은 형태로 손가락절단 등이 발생하게 된다.<sup>54)</sup> 연희자는 이러한 나병환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손가락을 <그림 5>와 같이 오므린다. 그리고 살이 문드러져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오므린 손을 잘게 떨며 나병환자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림 3> 갈고리 손<sup>55)</sup>



<그림 4> 나종나 증상<sup>56)</sup>



<그림 5> 연희자의 손<sup>57)</sup>

#### 나. 걸음걸이

나병환자의 발에서 흔히 보이는 궤양은 신경의 손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 방치하면 결국은 불구상태로 되는 경로를 취하게 되며 이는 근육의 마비를 가져오게 한다.<sup>58)</sup> 당시 자신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나병환자들은 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많아 하체의 신경이 마비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연희자는 <그림 6>처럼 나병환자의 움직이는 모습을 절름발이의 형태로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그림 6> 발을 절며 나병환자의 모습을 표현

53) 대한나학회 편저(2004), p.481.

54) 앞의 책, p.205.

55) 앞의 책, p.254.

56) 앞의 책, p.205.

57) 정범태(1985), 『韓國의 名舞』(서울: 한국일보사), p.338.

58) 대한나학회 편저(2004), p.481.

#### 다. 팔꿈치 굽기 사위

나병의 감각소실은 손의 배측부의 2번째 손가락 근위부의 적은 부위에 국한된다.<sup>59)</sup>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 외의 신경이 남아있는 부분을 사용하거나 마비된 손을 독특한 형태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그림 7>은 감각이 없는 손바닥으로 감각이 남아있는 팔꿈치의 가려운 부분을 긁는 장면이다. 당시 나병환자들의 가려운 부위를 긁는 모습을 이와 같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긁거리장단 호흡에 맞춰 하나의 춤사위로 표현하였다.



<그림 7> 마비된 손으로 팔꿈치를 긁는 장면

#### 라. 파리 잡아먹고 코풀기 사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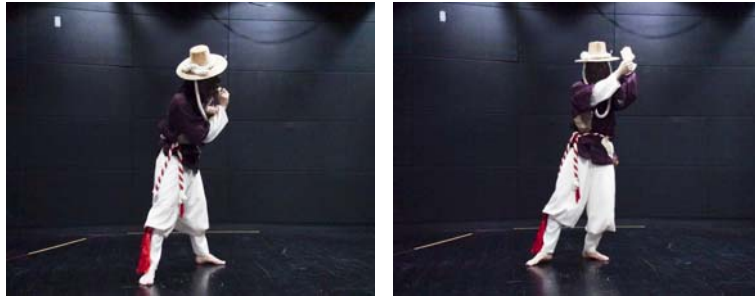
당시 어린아이들은 나병환자들이 파리를 잡아먹는 모습을 흉내 내었다고 하나, 실제로 파리를 잡아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문동북춤에서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마비된 왼쪽 손바닥에 앉아 있는 파리를 오른손을 팔꿈치를 중심으로 돌려 어지럽게 한 후 <그림 8>처럼 오른쪽 손등으로 짓눌러 죽인 후 먹는 사위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양손으로 닦는다.



<그림 8> 파리 잡아먹는 장면

파리를 먹고 난 후 나병환자는 <그림 9>처럼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코를 가까이 가져가 오른손을 이용해 양쪽 코를 푼다. 손이 마비되어 한손으로는 코를 버릴 수가 없어, 오른손으로 콧물이 올려져있는 왼쪽 손을 썩게 쳐 자신의 머리 뒤쪽으로 던져버린다. 이때 마비된 왼쪽 손목은 오른손에 의해 힘 없이 잘게 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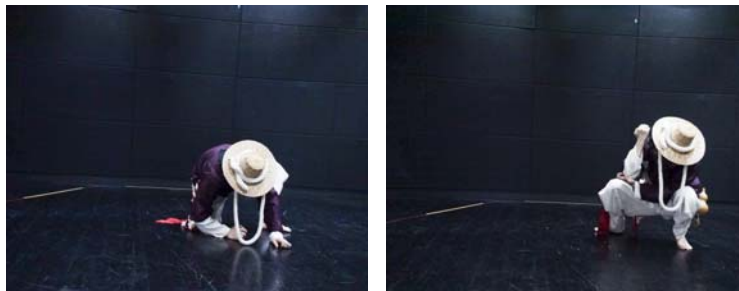
59) 앞의 책, p.255.



〈그림 9〉 코를 풀고 버리는 장면

#### 마. 곡식을 주워 먹는 사위

앞서 조사한 결과 과거 나병환자의 주식은 보리였다. 본 춤에서도 나병환자는 〈그림 10〉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떨어져있는 보리를 마비된 손으로 긁어모아 손바닥 위에 놓고 팔꿈치로 뺏는다.



〈그림 10〉 곡식을 긁어 뺏는 모습

그리고 〈그림 11〉처럼 손을 상·하로 번갈아가며 움직이며 보리의 껍질과 찌꺼기를 입으로 붙여 날려 버린다. 그리고 왼쪽 손바닥에 남아있는 곡식 알맹이를 먹는다.



〈그림 11〉 껍질을 붙여 보리만 남겨 먹는 모습

위 문동북춤의 춤사위와 나병환자의 움직임을 비교해 본 결과, 고성오광대의 연희자들은 나병환자의 모습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모방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나병환자들은 손목 부분과 하체의 마비로 인해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을 중심으로 독특한 춤사위들이 표현되었다. 손을 사용하는 행위는 항상 반대 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

되었으며, 대부분의 움직임은 팔꿈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로 인해 파리를 잡는 장면과 보리껍질을 날려버리는 장면, 팔꿈치를 굽는 장면과 보리를 뺏는 장면 등 비슷해 보이는 동작들도 있었다. 하지만 비슷한 동작의 경우 이야기구성을 통해 순서상의 거리를 두어 짜임새 있게 분리하여 전혀 다른 춤을 추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였다. 그리고 나병환자의 제한된 움직임을 굵거리 호흡에 실어 춤동작으로 제작하여 미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이처럼 고성오광대의 연희자들은 나병환자의 모습을 문동북춤이라는 탈춤으로 제작하여 멸시 받고, 놀림 받는 그들의 모습을 미적으로 제작하여 연행해온 것이다.

## 2. 문동북춤의 서사구조 연구

위의 춤사위를 중심으로 허중복은 나병환자의 이야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나병환자의 삶’, ‘좌절과 절망’, ‘소고춤’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병환자의 삶’을 표현한 전반부는 (1) 등장장면 (2) 파리 잡아먹고 코푸는 장면 (3) 보리이삭 주워 먹는 장면으로 구분하여 ‘나병환자의 삶’이 잘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좌절과 절망’을 표현한 중반부도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하였는데, (4) 소고를 잡으려다 실패하는 장면 (5) 소고 채를 잡으려다 실패하는 장면 (6) 소고와 소고 채를 잡는데 성공하는 장면으로 나누어 나병환자의 좌절, 그리고 소고를 잡기 위한 노력을 잘 연출하였다.

‘소고춤’을 연행하는 후반부의 경우 이전까지 여러 연희자에 의해 발전되어온 소고의 춤사위들을 총 다섯 개의 장면으로 구성하여 정리하였다. 현재 허중복에 의해 정리된 문동북춤의 서사구조를 표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허중복에 의해 정리된 문동북춤 순서<sup>60)</sup>

	서사구조	춤사위 구조
1	(1) 등장장면	① 발을 끌며 등장한다. ② 얼굴을 가리고 주변을 살핀다. ③ 크게 풀고 팔꿈치를 굽는다. ④ 돌고 작게 푼다. 서서 배김사위를 한다. → 크게 풀고 푼다.
	(2) 파리 잡아먹고 코푸는 장면	① 앉아서 배김사위를 한다. ② 불편한 다리로 인해 힘겹게 일어난다. ③ 파리를 잡고 먹는다. ④ 코를 풀고 던진다. 작게 풀고 푼다.
	(3) 보리이삭 주워 먹는 장면	① 보리이삭을 줍고 뺏는다. ② 보리를 털며 바람을 불어껍질을 날린다. ③ 보리를 먹는다. ④ 돌고 작게 푼다. 서서 배김사위를 한다. → 크게 풀고 푼다.

60) 허중복에 의해 소고를 가지고 노는 부분도 체계화된 동작으로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①~④까지의 동작만 정리하도록 하였다.

2	(4) 소고를 잡으려다 실패하는 장면	① 소고를 보고 소고를 어른다. ② 소고를 들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③ 비틀거리다 앉아 배김사위를 한다. ④ 일어나 무릎을 치며 좌절한다. ⑤ 비틀거리다 주저 않고 통곡한다.
	(5) 소고 채를 잡으려 다 실패하는 장면	① 다시 일어나 소고채를 집으러 간다. ② 소고채를 잡지 못한다. ③ 다시 비틀거리며 물러난다. ④ 작게 푼다.
	(6) 소고 잡는 장면 3	① 다시 힘차게 뛰어가 소고채를 잡으러 간다. ② 힘겹게 소고채를 잡는다. ③ 소고를 잡는데 성공한다.
3	(7) 소고를 들고 노는 장면 1~5	소고를 가지고 논다. 소고를 가지고 5가지의 춤사위를 하고 자진모리로 넘어가 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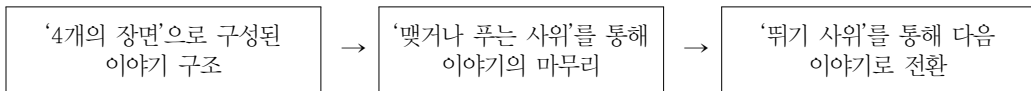
〈표 1〉을 살펴보면 문동북춤은 세 번의 감정변화를 겪는 서사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의 감정선 속의 ‘이야기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은 주로 나병환자의 食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나병환자의 고된 삶을 표현하였다.
- 2는 소고를 발견하나 이를 들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병환자의 애환을 표현하였다.
- 3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미명의 상태에서 신명을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 한을 해소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허중복은 이러한 구조마다 이야기에 맞는 동작들을 주로 3~4장단으로 구성된 춤사위로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은 이야기 속 ‘춤사위 구조’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전반부인 1의 구조 중 (1)~(3)은 모두가 동일하게 ①~④로 ‘4개의 장면’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맺는 사위와 풀기사위 등으로 그 장면을 마무리 짓고, 뛰기 사위를 통해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위의 구조를 요약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1의 서사구조



중반부인 2의 구조 중 (4)는 소고를 잡으려고 하나 잡지 못하는 모습을 ①~⑤개의 긴 장면을 10~14개의 장단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아마도 나병환자의 슬픔과 좌절의 감정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춤으로 충분히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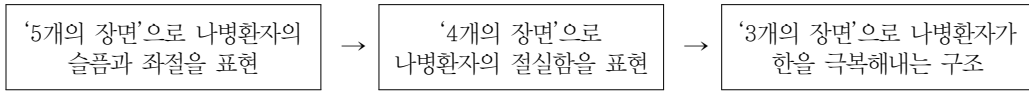
(5)의 경우는 ①~④의 장면에 4~8로 짧은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나병환자가 소고를 잡기 위한 절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6)에서는 노력 끝에 소고를 잡음으로써 한을 극복하는 나병환자의 모습이 연출된다. ①~③의 적은 장면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소고를 잡는 ②와 ③의 장면을 3~8개의 긴 장단으로 연출함으로써 나병환자가

한을 극복하고자하는 모습이 더욱 애절하게 연출된다.<sup>61)</sup>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2는 이야기가 진행될 때 마다 동작이 1개씩 작아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관객의 집중도를 위해 장면의 구조를 점점 짧게 좁혀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2의 서사구조



후반부인 3의 (7)에서는 간신히 잡은 소고를 통해 소고춤을 추며 미명의 상태에서 신명을 알아가면서 나병환자 스스로 본인의 한을 풀어내는 장면을 그린다. 황종욱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춤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가 이루어진 이후 고성오광대를 배우러 온 연희자들과 촬영을 하러온 기자들 또한 문동북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배우고자 하는 전수생들도 기존보다 많아졌다고 한다.<sup>62)</sup>

연희자는 문동북춤을 이러한 구조로 정리하여 연행함으로써 나병환자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였다. 자신들의 모습을 모방한 연희자가 노력 끝에 소고를 잡아 당당하게 관객들 앞에서 노는 장면을 통해 잠시나마 해방감을 맛보는 치유적인 정서를 가지게 하였다.<sup>63)</sup> 또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문동북춤을 배우고 싶게 하였고, 춤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병환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였다.

## IV. 결론

고성오광대의 문동북춤은 무형문화재 지정이후에도 춤사위의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초반에는 나병환자의 애환을 표현함과 동시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도 제작되었지만, 현재는 애환과 한을 풀어내는 춤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문동북춤을 연행하던 여러 명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춤사위의 발전이 진행되었고, 이를 정립하여 정확한 순서와 이야기구조를 가진 현재의 문동북춤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문동북춤의 이야기구조를 살펴본 결과 과거 경남지역 나병환자의 생활모습들이 남아있었다. 이를 보아 연희자는 나병환자의 생활모습을 관찰하여 탈춤으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동북춤의 춤동작과 나병환자의 움직임에 비교분석한 결과 문동북춤의 춤동작과 나병환자의 움직임은 매우 흡사하였다. 이를 보아 연희자들은 나병환자의 움직임 또한 자세히 관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병환자들은 손과 하체의 마비가 되어 제한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을 굵거리 호흡을 통해 춤으로 만들어 미적으로 표현하였다. 허종복은 기존의 문동북춤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세 개의 구조로 나병환자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61) 무대나 관객 등의 상황이나 호응에 맞춰서 연희자에 의해 장단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기도 한다.

62)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필자가 재학하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연희전공자들 사이에서도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은 인기 있는 춤으로 꼽혔다.

63) 무용/동작 치료의 선구자인 마리안 체이스(Marian Chance)의 치료적 방법에서 그룹 활동(group activity)과 탈춤에서 관객참여를 이끌어 자신의 문제를 방출시키는 형태는 정신적인 단결성을 통해 자기문제를 해소하는 치료적 요소를 지닌다는 점이 서로 유사하다. 이경희(2012), The Therapeutic Aspects of Korean Mask Dance, 『무용예술학연구』 37, p.43.

첫째, 전반부에는 나병환자의 고달픈 삶을 세 개의 장면으로 표현하였고, 주로 굶주림을 해결하는 장면인 파리 잡아먹기, 보리 주워 먹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장면의 끝에는 항상 ‘배김새’ 혹은 ‘푸는 사위’가 있었으며, 장면의 시작은 ‘튀기 사위’로 연결되는 구조로 구성되어있었다.

둘째, 나병환자의 ‘슬픔’과 ‘좌절’을 이야기하는 중반부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소고를 잡으려고 하나 잡지 못하여 절망에 빠지는 장면의 경우 5개의 장면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나병환자의 슬픔과 좌절하는 과정을 잘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나병환자가 다시 소고채를 잡으려는 4개의 장면을 통해 나병환자의 절실함과 노력을 표현하였고, 마지막으로 소고를 잡는 3개의 장면을 통해 나병환자가 신명을 모르는 미명의 상태에서 신명을 알게 되는 상태로 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셋째, 본인의 노력 끝에 잡은 소고로 스스로의 한을 풀고 기쁨으로 승화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춤사위와 서사구조를 발전시켜 보존해온 문동북춤은 현대의 일반관객과 나병환자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살고 있는 ‘나병환자’를 대상으로 연행할 시 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고성오광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동북춤을 중심으로 춤사위와 서사구조를 활용하여 창작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연희자들은 재창작시 고성오광대의 기능적인 부분과 함께 정신적인 부분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경남지역의 연희자들은 자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인 나병환자들을 관찰하여 그들을 위해 탈춤을 제작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연희자들도 현대의 약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모습을 관찰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춤을 제작했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할 시 그들의 모습을 연희자의 시각에서 새롭게 춤이나 극으로 제작할 때,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제작했으면 한다.

## ■ 참고문헌

- 김경남(2000). 『동래야류』. 서울: 화산문화.
- 대한나학회 편저(2004). 『나병학: 제3군 법정전염병』. 의왕: 한국한센복지협회.
- 박진태(2001). 『통영오광대』. 서울: 화산문화.
- 서연호(1981). 『野流·五廣大탈놀이』. 파주: 열화당.
- \_\_\_\_\_(2002). 『한국 가면극 연구』. 서울: 도서출판.
- \_\_\_\_\_(2010).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서울: 동문선.
- 심상교(2000). 『고성오광대』. 서울: 화산문화.
- 박전열(2001). 『봉산탈춤』. 서울: 화산문화사.
- 이두현(1981). 『韓國의 탈춤』. 서울: 일지사.
- 전경옥(2004). 『한국의 전통연희』. 서울: 학고재.
- \_\_\_\_\_(2014). 『한국전통연희사전』. 서울: 민속원.
- 정범태(1985). 『韓國의 名舞』. 서울: 한국일보사.
- \_\_\_\_\_(2006). 『한국춤백년·1』. 서울: 눈빛출판사.
- 정병호(1985). 『韓國의 춤』. 파주: 열화당.
- 정상박(1986).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 서울: 집문당.
- \_\_\_\_\_(2013). 『20세기 경남의 가면극과 공예: 양하 정상박 선생 기증사진집』.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진옥섭(2007). 『진옥섭의 藝人名人 노름마치·2』. 서울: 생각의 나무.
- 조동일(2005). 『한국의 탈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_\_\_\_\_(2006).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파주: 지식산업사.
- 김온경(1979). 경남가면무의 미적연구: 문둥이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화, 이필영(2009). 문둥병에 대한 민속상의 인식과 대응.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창열(2014). 고성오광대 문둥복춤 춤사위 연구: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 논문.
- 황규선(2004). 고성오광대 문둥복춤 춤사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말복(2006). 춤을 통해본 한국적 움직임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무용예술학연구』 18: 1-28.
- 김운미, 이미희(2007). 고성오광대 문둥복춤에 나타난 지역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1: 45-61.
- 배수을(2012). 통합무용치료의 접근 방법론 연구: 문학, 음악, 명상 요소와의 통합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37: 1-26.
- 주송현(2014). 장자(莊子)사상의 덕(德), 추(醜) 개념을 중심으로 본 고성오광대 문둥복춤의 양식적 특성 연구. 『우리 춤과 과학기술』 27: 107-142.
- 이경희(2012). The Therapeutic Aspects of Korean Mask Dance. 『무용예술학연구』 37: 27-44.
- 고성오광대 문화재청 기록화 사업 공연(2000). DVD 영상자료.
- 고성오광대 상설공연 실황녹화(1988). DVD 영상자료.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 고향을 나누는 춤판(1999). DVD 영상자료.  
 KUNA-KU 정기 Series 탈춤 공연 천하제일탈(2006). DVD 영상자료.  
 이윤석(2015년 6월 3일). 경남 고성군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이주원(2015년 6월 11일). 서울시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서관.  
 허창열(2015년 7월 24일). 서울시 중랑구 더광대 연습실.  
 황종욱(2015년 6월 3일). 경남 고성군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rich.go.kr/kr/mmulti/>>.  
 고성오광대보존회 홈페이지. <<http://www.ogwangdae.or.kr/main/main.asp>>.  
 박경량류 영남교방춤 홈페이지. <<http://gyobang.tistory.com/>>.  
 윤석산(2015년 5월 28일). [마음이 머무는 시] 대구식(大邱式)인사법2-상희구.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290>>.

논문투고일 2015. 10. 15.  
 심사일 2015. 10. 20.  
 심사완료일 2015. 11. 11.

## A Study on the Narrative and the Structure of Goseong Ogwangdae Leper Drum Dance style

- Focused on the Jong-bok Heo's Version -

**Park, In-Soo**

Instructor of School of Tradition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Goseong Ogwangdae Leper Drum Dance has made much progress since it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1964. The dance style and narrative structure had been developed naturally along with the performances of many performers, until the late Jong-bok Heo reorganized them in 1992.

A Closer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Leper Drum Dance, which the late Jong-bok Heo organized shows that it is roughly divided into three parts, which play a role of showing the changes of feeling of the lepers. In its introduction, the agonies of the lepers are expressed through the lives of the lepers, and in the middle of the dance, the frustration and hopelessness are expressed, not obtaining the small drum while trying to obtain it. Later, the dance of joy is performed with resolution of the deep sorrow, obtaining the small drum with toil.

Keywords: Goseong Ogwangdae(고성오광대), Leper(나환자), Mask dance(탈춤), Leper Drum Dance(문둥북춤), Jong-bok Heo(허종복)